“웹툰 지망생 순천으로 모여라”, 글로벌 웹툰 아카데미 시작

글로벌 웹툰 발굴 프로젝트 ‘웹툰 스타트업’ 과정 교육생 모집

창작의 메카 순천에서,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웹툰 작품 제작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3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글로벌 웹툰 발굴 프로젝트 ‘웹툰 스타트업’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문체부로부터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3대 핵심사업인 기업지원, 인력양성, 시민향유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인력양성 사업인 ‘웹툰 스타트업’ 교육 과정은 순천을 웹툰 창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신호탄이 될 예정이다.

‘웹툰 스타트업’은 순천시와 케나즈가 함께하며 앵커기업 케나즈가 입주한 순천시 글로벌 웹툰센터에서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4주간 진행한다.

만 19세 이상 웹툰 작품 데뷔를 준비하는 15인 이내의 예비창작자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 글로벌시장에 선보일 작품 기획안을 구성하는 웹툰 스토리텔링 교육이다.

특히, 이번 과정은 청강대학교 출신의 우수 강사진과 케나즈의 현업 멘토링으로 각자의 기획안을 완성할 수 있으며, 우수 기획안은 향후 2025 순천 웹툰 아카데미 본 과정에서 작품 제작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웹툰 스타트업에 참여하는 교육생은 지난 13일부터 순천에서 집중 연수 중인 프랑스 앙굴렘 아카데미 수료자 예비작가, 웹툰 PD와도 같은 공간에서 창작하며 네트워킹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국내 최대 웹툰 제작 사이자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기업이 순천으로 이전한 만큼 기업이 원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고,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순천만이 가지고 있는 탁 트인 공간에서 영감을 받아 우수한 K-콘텐츠가 제작되고 콘텐츠 전문인력을 공급하는 순천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과 문화도시팀(061-749-68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정성인 기자

광양금호도서관, 한 밤의 재즈 향연 ‘청춘의 한 페이지’ 음악회 개최

재즈밴드 ‘크림컴퍼니’ 초청 라이브공연 선보여

광양금호도서관은 도서관 주간(4.12.~4.18.)을 맞아 4월 15일 오후 7시에 감성 가득한 음악 공연 「청춘의 한 페이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오늘도 수고한 너에게, 재즈 한곡’ 이라는 부제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그리고 한때는 청춘이었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주는 곡들로 마련했다.

출연팀 ‘크림컴퍼니’는 2018년 창설된 재즈 밴드로 창조적이고 다양한 콘셉트의 공연을 선보였으며 특히 광주, 전남지역에서 활동하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대중가요를 재즈로 편곡한 버전을 연주하며,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적재의 ‘나랑 같이 걸을래’ 등의 연주로 특히 청년세대의 애환에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장년층이 좋아할 만한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ost 등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라이브 공연으로 4월의 화창한 봄기운과 생동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관객과의 만남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참여 신청은 3월 17일(월) 오전 10시부터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http://lib.gwangyang.go.kr/)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호도서관(☎061-797-384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라 도서관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금호도서관이 지역주민과 상생해 예술 인프라의 중심지가 되길 바란다”며 “도서관 주간을 맞아 이외에도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니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예술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금호도서관은 쉽게 만나기 어려운 전문 음악·예술인을 초빙해 지역주민들이 고품격 공연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광주 남구 “책 꾸러미, 무료로 드립니다”

18일부터 구립도서관 4곳에서 선착순 배부

“구립도서관에 오셔서 책 꾸러미 무료로 받으세요.”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가족 단위 책 읽는 문화 확산과 미취학 아동의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 북 스타트 책 꾸러미 사업을 전개한다.

17일 남구에 따르면 구립도서관인 문화정보도서관과 푸른길도서관, 청소년도서관, 효천어울림도서관 4곳에서는 오는 18일부터 연령대별 성장 시기에 맞춘 책 꾸러미 배부 사업에 나선다.

책 꾸러미는 0~18개월 사이 영유아용과 19~35개월 유아용, 36개월에서 취학 전 아이를 위한 책 세트로 구성됐다.

또 각각의 책 꾸러미에는 연령대에 따라 손가락 인형을 비롯해 스케치북과 그림 퍼즐이 각각 들어 있다.

책 꾸러미 무료 배부는 오는 18일부터 책 세트가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집에서 가까운 구립도서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한 뒤 꾸러미를 받으면 된다.

다만 도서관을 방문할 때는 관내 주민임을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챙겨야만 책을 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책 꾸러미는 방문 선착순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책이 필요한 주민들은 서둘러 구립도서관을 방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푸른길도서관(☎607-2531)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명수 기자

담양군, ‘제44회 전국대나무디자인공예대전’ 개최

융복합(일반부), 실용디자인(대학생부) 분야 작품 모집

‘제44회 전국대나무디자인공예대전’(이하 대나무디자인공예대전)이 대나무의 고장 담양군에서 개최된다.

대나무디자인공예대전은 82년부터 43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개최해 온 유서 깊은 대나무공예 공모전으로 담양군이 주최 및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대나무를 주재료로 해 현대적인 흐름과 디자인이 반영된 관광기념품, 생활 소품, 인테리어용품, 사무용품 등과 같은 창작 공예품을 주제로 한다.

일반부인 융복합 분야와 대학생부인 실용디자인 분야 두 개 분야로 나눠 진행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나무공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융복합 분야(일반부)는 출품신청서와 출품작 설명서 각 1부와 실물 작품을 제출해야 하며, 실용디자인 분야(대학생부)는 출품신청서와 출품작 설명서 각 1부 및 작품 JPG파일과 PDF파일 각 1개씩 제출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이며, 접수처는 담양군청 공공시설사업소(문의전화 061-380-2905)이다.

시상은 총 52점으로 상장과 상금 총 2,860만 원이 수여된다.

한편, 입상작은 담양대나무축제 시작일인 2025년 5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국대나무박물관 갤러리실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담양/이종옥 기자

“기다렸다” 강진영화관 4월 중순 개관 예정

30여 년 만에 찾아오는 강진영화관, 막바지 준비

강진군이 군민의 오랜 바람이었던 강진영화관의 4월 중순 개관을 앞두고 빈틈없는 준비에 여념이 없다.

1990년대 초 강진극장이 폐업한 이후 30여 년 만에 찾아오는 강진영화관은 2개관, 총 88석으로 조성돼 최신 개봉작을 상영, 군민들이 관외로 나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시중 영화표 가격이 2만 원이 넘어가 영화관을 찾는 횟수가 감소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의 확산으로 대도시의 영화관조차 관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물가 시대에 강진영화관이 개관하면 일반관람 7,000원, 10명 이상 단체관람은 6,000원에 관람할 수 있어 일반 영화관의 절반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다.

건물이 준공돼야만 순차적으로 진행 가능한 영화관 개관 절차에 따라 2월 말 어울림센터 준공 이후 지연됐던 영화관 소방 준공, 영화관 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4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과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영화관이 단순한 영화를 상영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문화적 소외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군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만족도가 높고 꾸준히 즐겨 찾는 여가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빠를 시일 내에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손경설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